

뜻깊은 이 4월에 우리 겨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숭고한 민족애와 조국애를 지니시고 한생을 바쳐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치신 평생의 로고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바치신 애국의 한평생이라고 말할수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겨레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 하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조국이 통일되면 자신께서는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다고, 통일이 이루어지면 밀렸던 잠도 푹 자고 마음놓고 휴식도 하겠다고 하시며 그이께서 지새우신 밤, 절으신 길도 이루 헤아릴수 없다. 나라의 정사를 도의하시 때에도, 창밖에 눈비내려도 그 언제나 피를 나는 겨레를 생각하시고 통일문제에 가슴 불태워오신 수령님이시다.

하나의 조선!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변의 통일지이고 철석의 통일신념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20정상 백두의 협산준령을 넘나드시며 일제에 반대하여 싸우신것은 분렬된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였다. 수령님께서 백두밀영에서 등잔불을 드시고 비쳐보신 조국의 지도는 백두산에서 한나산에 이르는 삼천리조선이었지 결코 두동강난 조선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

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변함없이 견지하신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로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민족의 통성변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어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게 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고 격제상대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란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물리일으키신분도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어느 하루도 실패하지 않는 날이 없으



재미교포 손원래일행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며 어느 한때도 편히 쉬신 날이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랫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

하여야 할 지도적지침도 마련해 주시였다. 조국통일3대헌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은 북과 남

의 현실적조건과 온 겨레의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었고, 조국통일3대헌장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

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통일위업을 기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리념,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파갑히 나서

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을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는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그토록 정력적으로 활동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심장의 박동도 통일을 위해, 겨레를 위해 바치시였다.

《 김 일 성 》

1994. 7. 7.》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기신 이 친필은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수령님의 불문불휴의 로고와 크나큰 심혈의 고귀한 증표이다. 친필은 불과 아홉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뜻이 담겨져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의 진두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품모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이 하늘아래 통일되고 부강변영하는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리국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떨치며 강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다그치는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힘은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애에 있다.

령도자는 인민사랑, 인민존중의 정치를 펴고 인민은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받들며 애국충정을 다하는것이 나라의 현실이다.

예로부터 인민은 나라의 근본이고 국가는 민심 위에 선다고 했다. 민심은 정치의 반영이며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은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베푸는 정치지도자를 만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인민에 대한 끝없는 믿음과 사랑을 베푸시는 위대한 인민의 정치가이시다.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열화같은 사랑은 그이의 천품이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 인민의 목소리는 그이께서 내놓으시는 모든 로선과 정책의 기준이고 출발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인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사랑의 정치를 펴시는 인민적정치가의 령도풍모

가 그대로 담겨져있다. 민족의 대극상을 당한 그 시기에 인민의 편익과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시고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변함없이 이어지도록 하신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인민사랑의 세계에는 새집들이 한 로동자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축복의 잔을 부어주신 이야기도 있고 조국의 바다지켜 위훈세운 해병들의 생을 영생의 언

에 의해 이 땅에는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눈부신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창건지리와 틀라인민유원지,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문수물놀이장, 마시령스키장을 비롯한 창조물들이 편이어 건설되고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는 현대적인 공장들과 봉사기자들이 도처에 생겨났다.

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현실은 령도자와 인민이 뜻과 정을 함께 하고 운명도 미래도 같이하는 혼연일체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제일국력이고 제일무기라는것

을 확증하고있는것이다. 조선을 여러차례 다녀간 바 있는 오스트리아 FHB식품회사 사장 헬무트 브람렌은 《나는 조선이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본다. 령도가 크고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다.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 없는것이 있는 나라라는것을 다시금 힘있게 파시한 공화국은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신심드높이 나아갈것이다.

숭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치며

《지난해에 칠색송어를 얼마나 생산하였소?》

주체90(2001)년 4월 어느날 한 양어장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곳 일꾼들에게 물으시였다.

일꾼들은 싹뚝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생산량이 높지 못했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생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들은 역시 대답을 망설이였다. 칠색송어는 사료단위가 높은 고급한 먹이를 요구하므로 거기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칠색송어를 그리 많이 생산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한 일꾼이 실패를 그대로 보고드리였다.

장군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였다. 양어장을 꾸러놓고도 맞춘은 칠색송어를 우리 인민들에게 먹이지 못하는것이 못내 서운하시여서였다.

《장군님, 다음해부터는 칠색송어를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겠습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칠색송어 100을 생산했다면 필요한 먹이는 자신께서 보장해주겠으니 생산물을 인민들에게 다 공급하라고 제삼 이르시였다.

그때였다. 한 일꾼이 문득 생각났듯 사실 새 세기에 들어와 태양절을 맞으며 인민들에게 얼마간의 칠색송어를 공급하였다고 말씀올리였다.

장군님께서는 반색을 지으시였다. 《칠색송어를 인민들에게 먹였던 말이지.》

그이께서는 곱씹어 되뇌이시였다. 그러시고는 정말 잘했다고, 듣던중 제일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듣던중 제일 기쁜 소식!

일꾼들은 그이께서 그토록 기뻐하실 줄은 몰랐었다. 적은량이지만 어쩌다 한번 인민들에게 고급물고기를 공급한것을 두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장군님이시였다. 일꾼들은 다시금 절감하였다. 장군님께서는 무엇을 만들었소, 무엇을 건설했소 하는 자랑보다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고있을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것을...

본사기자

령도자와 인민은 하나

덕에 세워주신 감동깊은 사연도 있다. 지방의 책임일꾼들에게 과업을 주시어 육아원, 애육원, 학원의 아이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도록 하시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한점의 그늘없이 밝게 키우도록 노력하신 원수님이시다.

사랑과 정이 없는 사회는 메마른 사막과 같으며 이 세상엔 꺾을수도 당해낼수도 없는 제일 강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과 정의 힘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뜻과 지향을 함께 하고 그 길에서 오가는 뜨거운 혈연의 정으로 이루어진 혼연일체애의 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상하고 의도하시면 한사람같이 일떠서 《마식령속도》창조와 같은 단숨에의 기강과 본매로 기적과 전변을 안아오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같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워 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는것이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이다.

경공업과 농업부문에서 생산잔여량이 일어나고있으며 최첨단과학기술이 힘있게 경제와 과학기술이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있다. 국제체육무대에서 련이어 우승을 떨치고 교육, 문학예술, 보건분야에서 자

를 확증하고있는것이다.

조선을 여러차례 다녀간 바 있는 오스트리아 FHB식품회사 사장 헬무트 브람렌은 《나는 조선이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본다. 령도가 크고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다.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 없는것이 있는 나라라는것을 다시금 힘있게 파시한 공화국은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신심드높이 나아갈것이다. 이런 힘을 가진 나라의 세계

를 확증하고있는것이다. 조선을 여러차례 다녀간 바 있는 오스트리아 FHB식품회사 사장 헬무트 브람렌은 《나는 조선이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본다. 령도가 크고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다.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 없는것이 있는 나라라는것을 다시금 힘있게 파시한 공화국은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신심드높이 나아갈것이다.

리은순

모란봉의 즐거운 웃음바다에 빠져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모란봉에 들놀이가지 않겠습니까?》

안내선생이 묻는 말이였다. 《좋은날이!》

조국방문일에 모처럼 마련된 들놀이인데 누가 마다하랴.

너도 나도 찬성이었다. 우리는 등산가는 아이들 심정으로 떠났다. 미끄러지듯 달리는 차창으로 싱그러운 봄바람이 흘러들고 활짝 핀 살구꽃과 개나리꽃들이 언뜻 언뜻 스쳐지나다.

예로부터 《을밀상춘》(을밀대의 봄맞이)은 평양8경의 하나라고 한다. 그만큼 모란봉의 봄은 평양의 풍치중에 처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경치인것이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유명한 《을밀상춘》을 보러 가는것이다.

정말이지 기묘하고 조화로운 산새, 짙은 녹음, 조개피어난 갖가지 꽃들이 하나로 어울려 모란봉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런데 우리 일행을 더욱 놀라게 한것은 시내의 곳곳에서 모란봉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행렬이었다. 벌써 모란봉은 봄놀이를 즐기러 나온 평양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여기저기 가

족친척, 친구, 련인들로 막들어차고 삼삼오오 음식들을 퍼놓고있었다. 또 이쪽에서 멋들어지게 《아리랑》곡조를 뽑는가 하면 리적에서는 《열세구 좋다!》하며 어깨춤을 댈췌고있었다. 그야말로 모란봉은 사람마다, 웃음바다. 노래바다였고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보다 웃음꽃이 만발한 기쁨과 랑만의 모란봉이었다.

우리 대교단일행은 저도모르게 그 기쁨의 정서에 끌리워 사람들속에 묻히였다. 우리가 중국에서는 동포들이라는것을 알고 사람들은 저마다 우리들의 손을 잡아끌었다. 흥겨운 파석에 앉아서 그들과 자연히 이야기도 주고받는데 파정에 평양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좋은 계절의 명절날, 일요일이면 수많은 당나귀소나 이꽃모란봉을 즐겨찾는다는데 대해서도 알게 되였다. 목소리는 다 달랐지만 거기에는 하나같이 생활의 즐거움과 랑만이 깃들어있었다.

내가 공화국을 방문하기 전에도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은 《어둠》이니, 《궤주립》이니 뽀니 하며 공화국에 대한 갖은 비난에 열을 올리였다. 서방의 그 거

짓전전에 속아 공화국에 대한 잘못된 표상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행성에는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일행이 평양의 모란봉에서 직접 만난 인민들의 모습은 서방의 선전과는 너무도 판이한 것이였다. 누구나 얼굴에 그늘이 없고 밝고 명랑하고 활기에 차있었다. 모란봉이 떠나갈듯 여기저기서 한껏 넘쳐나는 인민들의 웃음소리는 행성의 진정한 밝음과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를 순간에 알수 있게 하기에 충분했다.

해마다 조국을 방문하는 나지만 모란봉에서 받은 특별히 큰 충격과 감동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다. 조국인민들의 저 밝은 얼굴, 락천적인 모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 밝은 얼굴, 락천적인 모습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것이 아닐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여 더욱 살기 좋은 희망의 래일이 온다는 확신이 있기때문일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노래소리, 춤가락이 어찌 아름답고 건드러지지 않을수 있겠는가.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인

가 믿는데가 없으면 벌써 걸음새가 흐트러지고 말소리가 주눅이 들고 힘이 빠진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느님을 자기의 정신적지주로 삼지만 우리 조국인민들은 바로 자기 령도자를 하늘처럼 믿고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를 절대적으로 신봉한다. 그들은 바로 오랜 세월 갖은 시련과 난관을 겪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고난의 행군을 하는 파정에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실지 생활과 체험으로 굳히였다. 오늘도 또 한분의 락활하고 세련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조국인민들은 신심에 넘쳐있고 락천적으로 살며 넘쳐있는 사회주의강성국가, 문명국을 건설해가고있다.

나는 진정 감사를 드리고 싶었다. 아직은 생활의 어려움이 있어도 저렇게 신심에 넘쳐 락천적으로 살며 일하는 조국인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싶었다.

그리고 큰절을 올리리고싶었다. 이런 락판의 정신과 승리의 신심, 찬란한 미래를 조국인민들에게만이 아닌 우리 민족의 위대한 령수이

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고싶었다. 나라를 알자면 백성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한 나라의 오늘과 래일의 장래는 바로 백성들의 민심에 있는것이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높아야 만사가 잘되는것처럼 인민들이 흥성거려야 나라일이 잘 되는것이다.

그날 나는 모란봉의 즐거운 웃음바다에서 바로 불굴의 락관주의자들-진정한 마음의 행복을 안고사는 우리 조국인민들에게 흠뻑 반했다.

이것이 내가 이번 조국방문길에서 안아온 내 조국의 새로운 향취이다.

재조선인총련합회 부위원장 차상보

